


성명	한글 (한자, 예명)	윤형숙	지역	여수시	사진 
	분야	독립운동	출생 ~사망	1900~1950	
개요	독립운동가, 윤안정업, 윤혈녀				
연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1900년 9월 13일 화양면 창무리 윤치운의 3남 2녀 중 장녀로 출생</li> <li>▪ 1918년 순천 성서학원 수료, 광주 수피아여학교 입학</li> <li>▪ 1919년 일경에 체포, 병영에 유폐, 원산 마루다 신학교 수학</li> <li>▪ 1939년 귀향(여수시 봉산동), 여수 제일교회, 중앙교회, 봉산교회 전도사 6·25 동란중 인민군에 체포</li> <li>▪ 1950년 둔덕동에서 순국</li> <li>▪ 1963년 김현칭 내각수반 표창(반공청년 운동)</li> </ul>				
생애 및 활동	<p>1900년(고종 광무 4) 9월 13일~1950년 9월 28일.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. 전라남도 여천(麗川) 화양면(華陽面) 창무리(倉武里)에서 태어났다. 윤치운(尹致雲)의 3남 2녀 중 장녀이다.</p> <p>1919년 서울을 기점으로 3·1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났으며, 광주(光州)에서도 3월 10일 장날을 기하여 1,000여명의 군중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. 당시 전라남도 순천(順天)의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광주 수피아여고에 재학 중이던 윤형숙도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는데, 당시 시위대의 맨 앞에 서서 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헌병이 내리친 칼에 왼팔이 잘리는 부상을 입었다. 그는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4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으며, 감옥에 있는 동안 고문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다.</p> <p>감옥을 나와 함경남도 원산(元山) 마루다 신학교에 입학하였으나, 고문의 후유증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요양을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고창(高敞)에 내려왔다. 그는 고창 유치원에서 6년간 강사를 하였으며, 여수 봉산동(鳳山洞)에 봉산교회가 설립되자 전도사로 일하였으며 교회 내 설립된 봉산(鳳山)학원에서 교원을 맡기도 하였다. 이후</p>				

	<p>여수제일교회를 거쳐 중앙교회의 전도사로 일하던 중 8·15해방을 맞았다.</p> <p>1950년 6·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도사라는 이유로 인민군에게 붙잡혀 9월 28일 여수시(麗水市) 둔덕동(屯德洞) 과수원에서 손양원(孫良源)목사와 함께 인민군들의 총에 죽음을 당하였다.</p> <p>결혼을 하지 않아 슬하에 자녀가 없었다. 묘는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(召羅面) 관기리(館基里)에 있다.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2004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.</p>
<p>기록물 참고문헌</p>	<p>여성, 기록되지 못한 반쪽 역사, 2012</p> <p>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</p>
<p>기 타</p>	<p>▪</p>